

이달의교회



이산용 목사



새성전 1만성도의 비전을 품은
신·길·교·회



부임한 지 15년째 들어서셨다. 그간의 목회사역 가운데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을 분야별로 정리해 달라.

“생각해 보니 짧지 않은 시간인데, 사실 벌써 이렇게 되었나 싶습니다. 부임 초기에는 구원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수년 동안 일대일 상담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았나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신유 및 성령사역입니다. 머리로 아는 데 가슴까지는 안 내려온 신앙을 기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산 체험을 갖게 한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길교회가 기적과 이적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사역에 매달렸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밤마다 교인들과 함께 부르짖었습니다(세이레 자정기도). 감사하게도 그러는 가운데 강력한 기도꾼들이 훈련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경험사역입니다. 특별히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보다 더 친밀한 교제의 경험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전에는 마구 부르짖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침묵과 묵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상호 교통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도 일관되게 진행해 온 것이 있으니, 바로 제자사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길교회는 알파사역으로 시작하는 제자사역(양육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교회로 소문 나 있다. 제자훈련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알파와 성령수양회 → (인카운터 수양회) → 포스트인카운터 → 지도자학교 → 소그룹 개척 순의 기본과정이 있고, 그 외에 16가지 필수과정이 있습니다(아래도표 참조). 아직 의무는 아닌 권장

구분	1 과정 인카운터	2 과정 성령수양회	3 과정 인카운터	4 과정 인카운터	5 과정 인카운터
4월	403명 소그룹 개척	402명 영양학학교	403명 리더십훈련	404명 기독교교리	405명 영성훈련3
3월	302명 지도자학교	302명 영양학 개척	303명 말과 성(2)훈련	304명 내재치유세미나	305명 영성훈련2
2월	202명 포스트인카운터	202명 양보기도학교	203명 영성훈련학교	204명 순회(강)훈련	205명 전도력강화
1월	102명 양자	102명 예배학교	103명 구역개척	104명 신약개론	105명 영성훈련1

사항입니다만, 총 수료자가 1,100명이 넘고 성도들간에 의식의 변화가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 맞는 창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회 울타리를 넘어 학교(예. 중앙대)와 직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작업도 병행 중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련의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품성의 변화이다. 이를 위해 목회자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해도 그 안의 옛 품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목회자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이기엔 늘 성령님께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양육 시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구요, 특별히 양육과정 중 ‘순종(공정)훈련’ 과정을 개설했을 뿐 아니라 영성훈련 1, 2, 3과정에서는 품성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셀목회, 셀사역으로 전환하는 중이라 들었다. 전통교회에서 셀

교회로 전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다 아시는 애깁니다만, 서서히 해야죠. 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내외 셀목회 현장을 보여주는 작업도 필요하구요, 어른보다는 청년부에, 기존 남녀전도회는 셀을 경험한 구역장들로 하여금 파급시키게 한다든지 하는 지혜가 요청됩니다. 특별히 용어를 고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셀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컨셉도 제자사역이라는 기본 틀에다 셀을 기능적으로 보충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향후 목회계획 중 커다란 것 몇 가지를 말씀해 달라.

“첫째는 1만성도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미 당회원들이 먼저 눈이 오나 비가 오가 매주일 1시간 이상 지역전도를 나가고 있으며, 또 모든 기관과 구역들이 모임을 마친 후에는 전도를 나갑니다. 둘째는 새성전 건축의 비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 것은 아니나, 우선 성도들로 하여금 건축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샘플교회를 탐방하여 사진을 게시할 뿐 아니라 저부터 먼저 씨앗헌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적인 규모로, 또 초교파적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예배당을 세우기 전에 봉헌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셋째는 팀사역의 비전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의 분야별로 다양한 팀을 만들어 전 성도들이 1인 1팀에 속하게 하고, 그 안에서 셀을 경험하고 사역을 하게 하려 합니다 (전 성도 1인 1사역). 넷째는 소그룹화의 비전입니다. 단순한 친교와 사역 위주의 소그룹이 아닌,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재생산을 이루는 소그룹을 지향합니다.”

8월은 심의 계절이다. 성도들이 쉬면서 읽을 수 있는 좋은 책 한두 권을 소개해 주신다면?

“헨리 블랙바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제일 먼저 추천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유익할 뿐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또 순종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존 비비어의 『순종』을 좋아하구요, 또 하나 로버트 H. 슈러의 『불가능은 없다』를 꼽고 싶습니다.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인생의 환란풍파를 신앙적으로 극복하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신길교회 약사

- 1946. 4. 26. 창립예배
- 1946.12. 25. 예배당 신축
- 1984. 4. 22. 현 성전으로 입당
- 1990. 11. 10. 수양관 건립예배
- 1993. 5. 30. 선교교육관 봉헌(260평)
- 1994. 4. 24. 제8대 이신웅 담임목사 부임(한명우, 김중환, 김성주, 이성호, 김순모, 이낙현 박광철 목사를 이어)
- 1998. 11. 9. 멕시코 지교회 개척(6개)
- 2002.3. 9. 내팔 지교회 지속적인 개척(51개)
- 2002.9. 8. 이신웅 목사 위임식
- 2006.7. 31. 총회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5개 - 팔복, 이천제일, 울산소망, 오사카, 광)